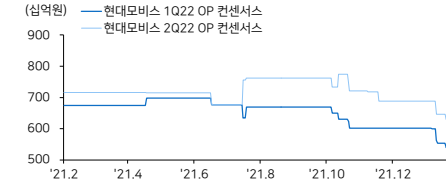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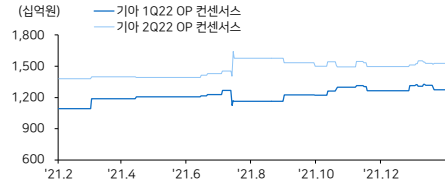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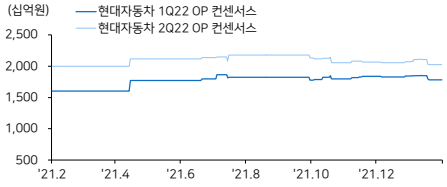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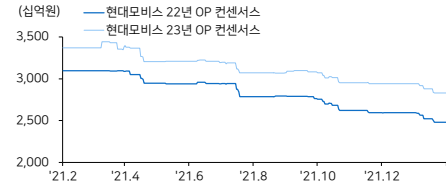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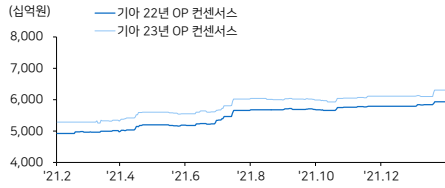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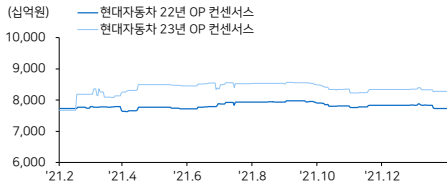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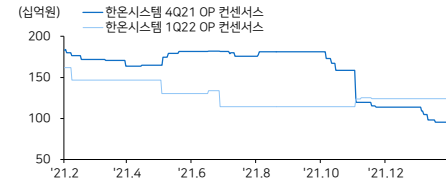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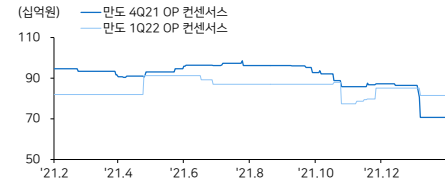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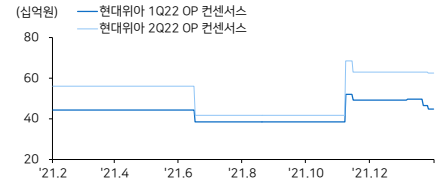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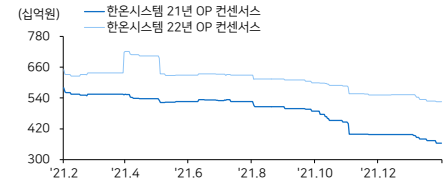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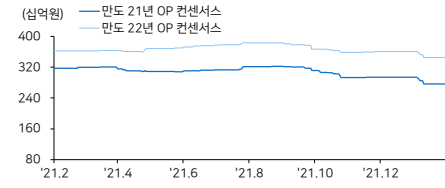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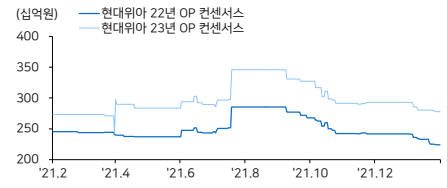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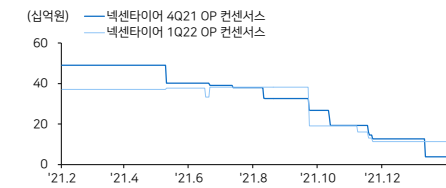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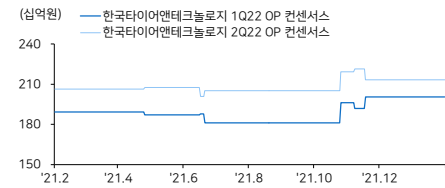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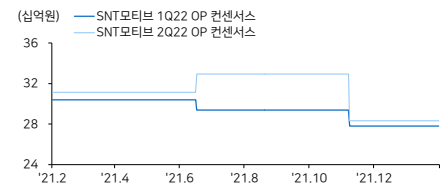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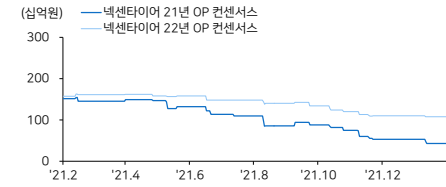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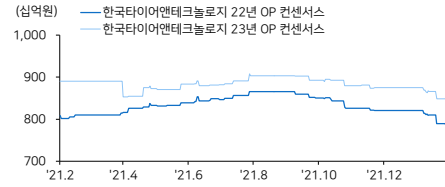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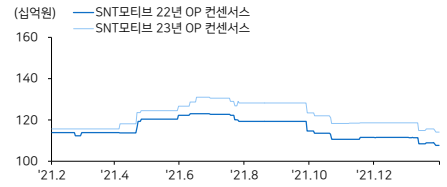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그룹 잇달린 회비...美 사상 최대 실적·중 연이은 추락 (이투데이)

CPCA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판매는 yoy -43% 감소한 3.1만대, 기아는 -18% 감소한 1.4만대를 기록함. 전체 산업 공급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 반면 미국에서는 현지 전략형 모델 확대로 역대 최대 1월 판매를 기록하며 '22년 순조로운 출발을 보임. <https://bit.ly/36dxdlp>

190원→2만8700원 150배 폭등...비명 부른 '반도체 칩' 정체 (중앙일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완성차 2차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중. 완성차업체는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반도체 영향을 일부 방어했으나 중소 부품업체는 한계 상황에 몰리는 곳이 늘어나는 중. <https://bit.ly/3H2cLmo>

VW CEO sees widespread autonomous driving within 25 years (Reuters)

VW CEO 디스는 지난 수요일 소셜미디어 '레딧'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25년 이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또한 VW가 SW 기술을 높이고 음성비서 등 기능 추가를 위해 더 많은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언급함. <https://reut.rs/3GP0AJm>

Alphabet's Waymo, CH Robinson to test automated trucks in Texas (Reuters)

Waymo는 트럭 운영업체 CH Robinson과 몇 달 내로 자율주행 트럭 테스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CH Robinson CCO는 트럭 자율주행 기술 배포 시 통사가 초기 유저가 될 수 있으며 트럭운전자 부족 문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53n4sJ>

"아직은 하이브리드"...현대차 최대 실적 '효자'로 (한경비즈니스)

내연차와 전기차의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판매에 기여하는 중.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20년 13.6만대에서 '21년 23.4만대로 yoy +72.1% 상승함. <https://bit.ly/3s0MVgf>

3분기 해소 전망 후반도체, 대란 더 깊어진다 (IT조선)

완성차 업계가 3분기 해소를 전망했던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더 깊어질 전망. 인피니언 CEO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제한이 2022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생산 회복은 여전히 오프쇼어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언급함. <https://bit.ly/3oWak9X>

Videos from inside Tesla Gigafactory Texas leak and show production lines (electrek)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스냅샷을 통해 내부 일부를 공개. 완성된 Model Y 등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제조 혁명'이라고 언급한 Tesla의 새로운 구조의 배터리팩과 4680 셀을 탑재한 EV SUV 출시를 의미. <https://bit.ly/3oTuyWD>

Biden administration expected to reinstate Calif. authority to set tougher emissions rules (Auto News)

캘리포니아주는 표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규제를 설정할 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보임. EPA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무산시켰던 캘리포니아주 자체 배출규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비규제 강화 기조에 있는 현 정부 방향과 일치. <https://bit.ly/369ix5y>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